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Memory of Gisaeng() represented in postcard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저자 (Authors)	최인택 Choi, In-Tag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67, 2018.7, 59-87(29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67, 2018.7, 59-87(29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91111
APA Style	최인택 (2018).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일본문화연구, 67, 59-87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39.113.137.*** 2020/04/25 16:0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최 인택

<국문초록>

1908년 일제통감부의 ‘기생단속령’에 의해 조선시대 관기제도 아래 있었던 기생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의 시선에 포획된 ‘대중기생’으로 재탄생되었다. 관기제도의 폐지, 기생단속령, 기생조합, 권번제도에 의해 식민지근대에 새롭게 창출된 ‘기생’의 이미지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라는 시선 안에 표상됨으로써 이전의 ‘신분제 기생’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 안에 자리매김 되었다. 본론에서는 식민지권력에 의해 통제의 대상이 된 ‘대중기생’에 대하여 기생엽서에 반복하여 재생된 ‘기생’이미지와 이를 보완, 강조하는 텍스트에 표현된 기생담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키워드 : 기생단속령, 신분제 기생, 대중기생, 기생엽서, 권번(券番)제도

목 차

서론

제1장 ‘대중기생’의 탄생

제2장 통제대상으로서의 기생과 사회적 맥락

제3장 조선의 풍속엽서와 기생표상

결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5848)

서론

식민지기 기생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제에 의한 기생단속령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정책시행으로 조선시대의 관기제도 아래 전통적인 가악무(歌樂舞)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기생들을 몸을 파는 창기들과 동일시하여 사회적 통제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식민지배 혹은 문화침략의 산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일본의 권번(券番)제도¹⁾ 도입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미천한 신분에 처해 있던 기생들의 근대적 자아형성에 기여하였고 전통예악의 맥을 잇는 역할에 기여하였다는 견해이다²⁾.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입장은 비록 기생사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근대사를 관통하는 이론적 양론으로 오늘날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론에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식민지기 사진엽서에 표상된 기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생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관기제도의 폐지, 기생단속령, 기생조합, 권번제도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식민지근대에 새롭게 창출된 ‘기생’의 이미지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라는 시선 안에 표상됨으로써 이전의 ‘신분제 기생’³⁾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 안에 자리매김 되었다. 식민지권력에 의해 통제의 대상이 된 ‘대중기생’을 둘러싼 담론과 이미지 표상은 신문, 잡지, 관광홍보물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본론에서는 기생엽서를 통해 반복하여 재생된 이미지와 이를 보완, 강조하는 텍스트에 표현된 기생담론

- 1) 許娟姬(2005:73-83)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640년 교토의 시마바라(島原)에 유곽이 형성되고 당국에 의한 유녀(遊女)들의 관리, 감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마바라유곽에는 유곽 내에서 생활이 가능하게끔 게이샤(芸者)나 유녀들을 고용하고 있는 오키야(置屋)를 비롯해 차야(茶屋), 일반상점이 마련되어 유녀들을 격리, 감시하게 하였다고 한다. 에도의 요시와라(吉原)를 위시하여 전국에 시마바라유곽을 모델로 한 유곽들이 형성되었고, 1762년경부터는 이들 유곽으로부터 벗어나 바깥에서 영업을 하는 게이샤나 유녀들이 생겨나 이를 관리, 감시하는 겐반(見番)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유곽 바깥으로 나가 영업하던 자들에 대해 유곽이 중심이 되어 관리, 감독하고 있었지만,明治기에 들어 근대적인 정비에 따라 각 지방의 경찰들이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2) 기생과 관련된 연구를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공식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로 정리하고 이들 연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황미연의 연구를 참조 바란다(2013 『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일제강점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민속원).
- 3) 본론에서는 한정적으로 조선시대 관기제도의하의 천민신분의 기생을 ‘신분제 기생’으로 표현한다. 또한 이전의 한정된 계층에 의한 교섭대상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포착되어 기업(妓業)을 영위하는 근대기의 기생을 ‘대중기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 ‘대중기생’의 탄생

조선시대의 기생신분은 관기를 의미하였으며 관비로서 궁중, 지방관청에 소속된 자들로 궁중에서는 주로 장악원(掌樂院)에서 기예(技芸)의 훈련을 쌓아 여악(女樂)을 담당하거나 내의원(內醫院)⁴⁾ 등에서 의녀(醫女)일을 보았던 ‘약방기생(藥房妓生)’ 혹은 바느질을 담당하는 ‘상방(尙房)기생’ 등에 속해 있었다. 특히 약방기생의 경우는 음악, 무용, 문학 등 지식교양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다고 한다(鄭炳設 2010:19). 지방의 관아에서는 연회 때에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일이나 지방관들의 시중을 들며 처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중 시서화(詩書畵)에 능하고 용모가 수려하며 기예가 뛰어난 기생들은 중앙의 경기(京妓)로 뽑혀가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 천민신분이었던 기생들은 1908년 기생단속령이 시행되기 이전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관기의 기안을 혁파하여 약300명의 관기가 해고되었고 1905년 여악의 폐지, 1907년 내의원과 상의원의 의녀와 침선비(針線婢)가 폐지되면서 관기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이경민 2004:26).

즉, 대한제국기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신분제폐지에 따라 관기제도는 단계적인 폐지과정에 있었지만, 통감부에 의한 ‘기생단속령’이 실시됨에 따라 식민지근대라는 시선으로 재탄생한 ‘대중기생’의 창출로 이어졌다.

1910년대 초반의 기생조합과 1915년 이후 권번으로 재조직(권도희 2001:326)된 기생들은 각종 공연예술을 통하여 전통춤과 여창, 가사, 소리를 중심으로 연주를 선보였다 한다(국립민속박물관 2009:46).

즉, 19세기 말엽까지 관기와 기생이 궁중과 풍류방(風流房)의 음악을 담당하였고, 창기 혹은 패거리 계집들이 민간에서 유행했던 잡가(雜歌), 산타령계(山打令系)음악 등을 불렀으며 여악이 붕괴되면서 기생들은 장악원(掌樂院)이 아닌 경시청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삼패(三牌)⁵⁾류가 조직화되어 급성장하게 되고 관기

4) 궁중의 왕, 왕비 등의 병 치료나 약 조제를 담당하던 의료원.

와 창기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 졌다(권도희 2001:324).

뿐만 아니라 궁중이나 관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인들을 위한 공연을 담당하였던 관기들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무대공연을 펼치는 ‘대중연예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기생조합, 권번, 평양기생학교 등에서 훈련을 쌓은 기생들은 근대적인 무대시설이 갖춰진 극장이나 공연장으로 활동공간이 넓어졌다(이경민 2004:89). 1927년 개국한 경성방송 등 전파매체에서 공연을 하거나, 음반취입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 확산에 기여하는 일부기생들도 생겨나 기생들 간에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생들은 명월관, 국일관 등의 요릿집에서 공연을 하거나 술시중을 드는 ‘대중기생’으로 활동의 장을 넓혀갔다. 이들 중에는 신문이나 대중잡지의 연예란에 등장하여 유명인과 염문을 뿌려 가십을 장식하는 소위 말하는 ‘대중연예인’적인 영역에서 대중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자들도 있었다(서지영 2004:14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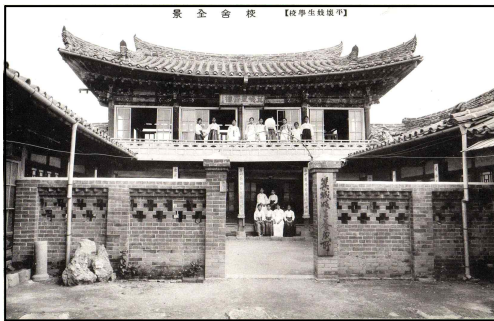
한편 일본인들의 조선기생에 대한 인기는 기생업서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관광홍보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조선관광안내서에는 철도노선도와 함께 주요관광지의 ‘권번’에 대한 소개는 물론 기생의 화대(花代)가 소개되어 있을 정도였다. ‘식민지여성=기생’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로서 사진엽서, 관광홍보물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중 일본인들의 관광코스로도 인기가 높았던 ‘평양기생학교’⁶⁾는 수

5)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1927)에서 일본의 유녀(遊女)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총칭해서 ‘갈보(鰯浦)’라 하였는데, 이를 다시 기생(기녀, 一牌), 殷勤者(隱勤者, 二牌), 搭仰謀利(三牌), 花娘遊女, 女社堂牌, 色酒家(酌婦) 등으로 분류하였다(藤永壯 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確立過程—1910年代のソウルを中心に—』 『二十世紀研究』 第5号, 15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권도희(2001)에 의하면 이러한 3패 구분은 1924년 『개벽』의 기자가 “경성의 화류계”에서 기생이 장부에 오르는 순서와 품위에 따른 구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1910년대에는 관기(기생)와 비관기(무명색·삼패류)로만 나누었고 이러한 양분 계급구도가 무너지고 3등급으로 확장되는 것은 1910년대 말이나 1920년대 초나 되어서 가능했다고 한다(342쪽). 하지만 1905년에 동경의 박물관(博文館)에서 발행한 『韓国写真帖』 41쪽에 ‘칼보(갈보)’에 대한 기술에서 일패, 이패, 삼패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지면상 상술하지 못하지만, 이미 이능화나 『개벽』의 기자가 쓴 기사 이전에 이러한 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1921년에 평양기생권번 학예부가 설치되었고, 1926년에는 일본 실업소녀학교의 사례에 따라 기생학교가 탄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시카와 헤스이의 『조선기생 관찰기』(2013)에 의하면 1913년 12월에 ‘기생양성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57쪽). 또한 이경민

업연한 3년의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기생에게 필요한 음악, 무용은 물론 시서화(詩書畵), 일본노래, 샤미센(三味線) 등도 가르쳤다.

[엽서 1]은 ‘평양기생학교 교사전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엽서인데 건물 상단에는 ‘기성성운루(箕城星雲樓)’⁷⁾라는 현판이 보이고, 건물입구 담장에는 ‘기성기생양성소(箕城妓生養成所)’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엽서 1-1]은 ‘평양기생학교참관기념(平壤妓生學校參觀記念)’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봉투인데 ‘토고사진관판매부(東郷写真館販売部)’에서 선물로 판매하던 사진세트이다.



[엽서 1]



[엽서 1-1]

이와 같이 기생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발행 된 각종홍보물에 ‘조선관광의 꽃’으로 자리매김 되어 사진엽서, 관광홍보팸플릿, 포스터, 사진첩을 통해 ‘관광아이콘’으로 유통, 확산되었다.

(2005)에 의하면 평양기성권변의 기생양성소 건물[엽서1]을 설명하면서 “이 곳은 평양기성권변이 운영했던 가장 기생학교로 1900년대에는 ‘평양관기학교’로 불리다가 1920년대 초반엔 ‘평양기성권변학예부’로 그리고 1930년대 초에는 ‘평양기성기생양성소’로 그 명칭이 바뀌어 왔다”(129쪽)고 한다.

- 7) 국립민속박물관(2009) 『엽서 속의 기생일기』민속원, 35쪽의 사진설명에는 ‘기성성로루(箕城聖露樓)’라 되어 있으나, 이슬 로(露)자가 아닌 구름 운(雲)의 이체 자임을 밝혀둔다.



제2장 통제대상으로서의 기생과 사회적 맥락

한편, 1908년 관기제도의 폐지와 기생단속령에 의해 일본의 게이샤 운영, 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성립된 기생조합, 권번제도라는 틀 안에서 조선후기의 전통적 가무음악이 계승되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기생활동은 전근대시대의 여악으로서의 전통적 관기이미지를 약화시키면서 기예를 상품적 가치로 전이시키고 기생의 연회 접대부의 성격을 보다 강화’(서지영 2004:135)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담당했던 것은 경시청 위생계였으며 1908년 9월 25일 동시에 공포된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⁸⁾은 전통적 가무음악 전승자로서의 기생과 몸을 파는 창기들의 경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시선에 새로이 포획된 기생들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개항 후 일찍부터 기생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통감부의 ‘풍속경찰’ ‘위생경찰’들이었다. ‘남녀유별’이라는 사회적 질서아래 ‘일부종사(一夫從事)’를 표면상의 미덕으로 삼던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기생들은 특이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라는 가족제도를 흔드는 원인이며 매춘문제 등 사회풍기를 흐리게 하는 존재로 철폐되어야 할 대상(許娼姬 2010:131)이었지만 일본내지의 사례처럼 국가권력의 통제아래 둠으로써 세금수입, 밀매음 단속, 항일운동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경민 2004:27) 식민통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경찰들이었는데 성매매단속과 관련하여 성병검사의 필요성으로 부터였다고 한다(宋連玉 2006:213)⁹⁾. 원래 기생과 창기는 다른 부류였음에도 ‘매음을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의 매개자들로 자리매김 됨으로써 그들의 몸은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성통제(性統制)제도는 먼저 해외의 일본인 사회에 일본내지의 제도를 모델로 한 성(性)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지배민족에게까지 일본의 성풍속문화가 침투하게 되면서, 공창제도를 중핵으로 하는 성관리 제도가 당초의 일본인 매

8) 기생단속령에 따라 경시청에 신고하여 허가증을 얻은 자를 기생으로 인정하였고 그만 둘 때는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했으며, 모두 기생조합에 가입하게 하였다. 동시에 제정된 창기단속령의 경우 기생과 창기는 그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공포된 명령이지만, 기생을 창기로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9) 특히 통감부 강원도 경찰부장이었던 이마무라 도모에(今村 鞆)가 1909년에 쓴 『朝鮮の売春婦』가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한 최초의 논고라 지적하고 있다.

매춘에 대한 관리로부터 식민지사회의 성풍속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역할을 팽창시켜왔다(藤永壯 2004:13).

이 점과 관련한 허연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부산이 개항된 2년 후에 요시와라(吉原)유곽에서 5명의 창기가 건너 왔고 얼마 되지 않아 309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어 1905년 12월에는 조선의 일본인거류지에는 부산 200명, 인천258명, 경성 173명, 원산 103명, 그 외 16개소에 5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예창기(芸娼妓)가 있었고, 예기견번(芸妓見番)은 인천에 4곳, 진남포에 1곳이 있었다고 한다. 즉, 1905년 시점에 예기, 견번, 오키야(置屋) 등 일본 화류계의 시스템이 조선의 일본인거류지에 이미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許娟姬 2005: 75-76).

다시 말해 일본의 성관리시스템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생은 몸을 파는 창기와 동일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일본식의 ‘取締(とりしまり)’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부러 조선식의 ‘단속(團束)’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인의 주체적 청원(宋連玉 2006:214)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고 기생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이 은폐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16세기 말 유녀(遊女)들을 모아 일정한 구역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유곽(遊廓)이 성립되면서 에도막부에 의한 법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고, 유녀들은 유곽운영자들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는 통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유녀’와 ‘유곽’이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의 ‘기생’은 서로 다른 존재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와무라는 이조말기에 일본이 요시와라(吉原)유곽의 권번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에도시대 일본에서 탄생한 유곽의 유녀(遊女)와 조선의 기생을 동일시하는 일본인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川村湊 2016:68).

이처럼 공창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에 공창제도¹⁰⁾를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관기(官妓), 기생(妓生), 기녀(妓女), 여악(女樂), 여기(女妓) 등으로 불리던 여성들은 일본의 유녀와 같은 의미를 포함한 ‘기생’이라는 일반명사로 표상되고 호칭되었다. 따라서 기생에 대해 전통음악의 演戲주체, 전승주체로서의 기생과 술집, 접대, 몸을 파는 작부라는 저급 혹은 천대의 대상으로 보는 양의적

10) 공창제도는 법적으로 1916년 ‘貸座敷娼妓取締規則’ 등 일련의 ‘接客業取締規則’의 제정으로 완성된다.

시각이 존재한다.

물론 이 사이에는 다양한 층위의 스펙트럼이 존재하여 전자의 긍정적 사회적 위치와 후자의 부정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식민지 수탈론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른 다양한 분석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통예술의 전승자로서의 이미지와 웃음을 파는 직업여성으로서의 이미지가 일제 침략기를 계기로 기생에 대한 타자화가 이루어졌고, 말 할 것도 없이 그러한 기생표상의 생산주체는 일제 식민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기생을 표상하고 재현하는 방식 또한 근대의 산물인 사진과 이를 확산시키는 매체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최인택 2017).

예를 들어 이경민(2004:20-21)은 1914년 1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예단일백인(芸壇一百人)’ 특집기사에 소개된 90명의 기생들에 대한 기사에서 기생사진아카이브의 초기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기생사진과 함께 출신지, 현주소, 소속, 기예, 용모 등이 기삿거리로 제공되었고 기생들이 이미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대중기생’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¹¹⁾. 이러한 기생에 대한 표상작업은 1918년 조선연구회에서 발행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으로 이어졌다고 이경민은 지적하고 있다. 총 605명의 기생사진과 함께 각 권번 및 기생조합 기생들의 나이, 원적지, 현주소, 특기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기생들에 대한 용모평가와 기예평가를 한글과 한문으로 일일이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작업을 누가 왜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진원의 『조선미인보감』 해제(2007:5-20)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잡지, 엽서 등에 의해 표상된 기생이미지의 틀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기생이미지의 대중화가 일본인은 물론 당시 조선인들에게도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예단일백인’을 연재한 매일신보는 일제의 내선일체를 주창하는 관제일간지였지만 당시 유일한 한국어 신문으로 조선인독자층에게도 기생의 대중화가 유포되는 표상공간(이경민 2004:23)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근대의 산

11) 당시 매일신보는 한국어 일간지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 식자층들에게도 ‘대중기생’에 대한 이미지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소비되었을 것이다.

물임을 기억해 볼 때, 조선인에 의한 기생 이미지와 일본인들의 의한 기생 이미지가 ‘타자성’이라는 시선의 교차를 통해 동질적으로 소통되고 유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본문의 성격상 다른 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3장 조선의 풍속엽서와 기생표상

風俗이라는 용어는 원래 중국고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施政教化가 바람을 이루어 아래의 俗에 영향을 끼치고 전승되어 가는 것’을 일컫는다(日本民俗大辭典 2000:454). 또한 예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생활관습 전반이나, 당대의 유행이나 관습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나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이데올로기적 용법으로 차용되어 사용될 경우 ‘전통적인 것=미개(未開)’ 혹은 ‘개화(開化)’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이미지왜곡이라는 가치론적 용어로 포장되기도 한다. 특히 일본에서 사용되는 ‘후조쿠(風俗)’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풍속’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선풍속엽서 중에 기생엽서가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점, 맥락상 특징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징의도란 조선의 ‘성풍속=기생’이라는 이미지 표상을 강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은연 중에 깔고 있다는 뜻이다¹²⁾.

또한 식민지기 엽서에 표현된 ‘양반’ ‘사대부’ 등 조선의 특정 신분이나 ‘역부(力夫)’ ‘지계꾼’ ‘옹기장이’ 등 특정직업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기제로 활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엽서에 사용된 사진이미지는 대량으로 인쇄, 복제되어 유통됨으로서 이미지의 고착화는 물론 식민지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종의 기호역할을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인들에 의해 유통되고 확산된 조선의 특정신분과 직업에 걸쳐 대상화된 것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기생’일 것이다. 이는 일제 식민지기부터 1970년대 후반 즈음 일본남성들에 의한 ‘현지처’ 의미와 섹스관광이 포함된 ‘기생관광’ ‘기생파티’ ‘기생출장’에 이르기까지 양 세기에 걸쳐 통용되어 온 대단히 이례적인 용어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12) 일본에서 발행된 엽서 중 ‘풍속’이라는 제목이 직접적으로 인쇄된 세트엽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대만, 만주, 조선의 경우 ‘풍속’이라는 제목의 세트엽서가 많이 존재한다.

기생은 왜 이러한 이미지로 고착되어 왔을까. 기생은 당시 조선의 전통적인 남녀유별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남녀질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존재로 못 남성과 자유로운 교섭이 가능했던 특이한 존재였다. 따라서 일본의 예, 창기와 동일시되어 몸을 파는 직업여성으로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성풍속의 매개자’라는 기생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 일본인들에 의해 통용된 이러한 기생이미지는 엽서라는 매체를 통하여 확산되었고 기생이미지의 고착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물에 빠짐없이 등장한 것도 기생사진이었다.

예를 들면 1911년 3월 일본의 국민신문사와 조선의 경성일보사가 공동주최로 조직한 ‘조선실업시찰단’ 231명이 내한하였을 때 각지를 시찰하며 만들어진 사진첩에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바로 기생사진이었으며 이는 “일본인이 집단으로 행한 기생관광의 기원”으로 엿볼 수 있다고 지적(이경민 2004:193-194)한 것처럼 ‘기생’이라는 용어가 조선시대, 식민지기를 거쳐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한편 엽서가 개인 간 혹은 다양한 관계자들끼리 주고받는 ‘서신’기능을 갖지만, ‘봉서’가 갖는 ‘내밀성(內密性)’에 비교하면 제3자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큰 ‘불완전한 서신’이다(浦川和也 2017:11). 그럼에도 엄청난 양의 조선의 사진엽서가 유통되고 소비된 배경에는 사진엽서가 갖는 다의성(多義性) 때문이다.

즉,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된 조선의 ‘이미지표상’이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매체의 기능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엽서는 ‘일본인을 주요고객층으로 일본인이 제작하고 발행한 것이기에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던 ‘시선’이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자료(浦川和也 2017:13)이다. 특히 기생엽서는 다량으로 유통되어 조선관광 기념선물세트로도 인기를 획득하였고 조선을 찾는 일본인들의 식민지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품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초기의 기생사진은 마치 증명사진을 찍듯 무표정한 모습이었고, 1900년 초반부터 1910년 경까지는 관기복장이나 기예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 성적 이미지보다 풍속적 이미지가 강조된(권혁희 2005:231-232) 사진이 엽서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양한 포즈와 친근한 미소를 띠며 여성성이나

기생에 대한 성적 욕망의 시선에 포획된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며 1920년대, 30년대로 오면 조선풍속이나 기생이라는 제목이 점차 사라지고 [엽서 2] 처럼 각 기생의 이름이 쓰인 개성이 강조된 1인 사진이 나오기 시작한다(박민일·신현규 2009:180).

이는 유곽에서 유녀들을 유리 창문 앞에 세워놓는 대신 사진을 진열했던 당시의 사회상(권혁희 2005: 233)을 감안하면 기생의 이미지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진엽서에 인쇄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었다. 따라서 기생엽서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또한 기



[엽서 2]

생엽서 중에는 ‘조선미인=기생’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여성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생이미지 표상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텍스트가 곁들여져 있다. 텍스트는 짧은 ‘감상문’형태나 ‘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작자를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엽서발행소에서 디자인, 편집하는 과정에 관계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진의 형상적 이미지를 보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표상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담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최인택 2017:137-138). 사진엽서라는 한정된 공간에 표상된 ‘이미지 설명문’은 비록 그 형식이나 내용이 전형적인 ‘시’나 ‘절구(絶句)’의 형태를 벗어나거나 다소 격이 떨어지는 것이라 평가되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대단히 인상 깊은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신동규컬렉션’(2017: 132)¹³⁾ 중에서 8장 세트엽서로 기생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보완하며 ‘기생담론’의 중심적인 틀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여덟 사람의 기생” “조선풍속 기생생활” “기생정서”라는 제목의 엽서 세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⁴⁾.

13) “신동규 컬렉션”에 대한 소개는 최인택(2017: 132)을 참조 바란다. 동아대 신동규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28,000여장의 사진그림엽서는 식민지기 조선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유, 무형문화유산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시각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군은 한반도를 둘러싼 근대사연구에 새로운 시대적 정황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 학문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신동규 컬렉션의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 DB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3년간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분석·해제 및 DB구축을 주제로 진행 중임을 밝힌다.

1. “여덟 사람의 기생(艷姿八態)”

[엽서 3]은 경성 히노데상행(京城日之出商行)에서 발행한 8장 세트 사진엽서로 1930년대 중반이후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봉투에 ‘妓生 艷姿八態’라 적혀 있는데, 한글로 ‘여덟사람의 기생’이라 인쇄되어 있다.



[엽서 3]

[엽서 3-1] 입맞춤

붉은 입술로 조용한 입맞춤. 열정의 입술로 뜨거운 입맞춤. 꽃이여! 그대는 정말로 행복한 자로구나. 웃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치열을 드러내며 애교가 눈에서 입에서 뺨에서 지금 당장에라도 뛰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즐거워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엽서 3-1]

건 정말로 즐거운 일인걸요. 그렇다면 그녀여! 이 우울한 인생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낸 그녀여! 그녀여!(くちづけ: 紅き唇もて、ひそかなるくちづけー パッションの唇もて、あつさくちづけ一なれ、花よ! そちやホンマに仕合せもンぢやぞい。彼女は白い歯並を見せて笑ひました。愛嬌が、目から、口から、頬ペタから、今にも躍り出してきさうです。あたし、とても朗らかなのーでも、生きてるつてこととても楽しいこつてすものーさては彼女よ! この憂鬱な人生に、生きることの楽しさを見出し得た彼女よ! さては彼女よ!)

엽서사진의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소문난 오산월(吳山月)이다. 어깨에 손을 두르고 무심히 꽃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와 “열정의 입술로 뜨거운 입맞춤”이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설명문이다.

14) 이 외에도 본론 주제와 관련된 몇몇 엽서세트가 있으나 지면상 본론의 논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세 종류의 엽서세트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엽서 3-2] 추상

어둠에서 어둠을 헤집어가며, 오래된 기억에 잠긴 여자. 고향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 산을, 저 강을, 어릴 적 친구를, 아아, 그리고 첫 사랑의 추억을. 이어지는 추억은 추억을 불러 마음의 고통이 슬픈 음악을 연주한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 그래도 역시 그리운 사랑의 상흔. 어둠에서 어둠을 헤집어가며 오래된 기억에 잠겨든 여자(追想: 闇から闇をまさぐって、古き憶ひ出に浸りゆく彼女一故郷のこと父のこと、母のこと、あの山、あの川、幼なかりし頃の友のこと、あゝそして初戀の憶ひ出一次から次へ、憶ひ出は憶ひ出を誘って、こゝろの顫動が哀音を奏でる思ふまい、彼のひとのこと一でもやつぱりなつかしい戀の傷痕一闇から闇をまさぐって古き憶ひ出に浸りゆく彼女一).



[엽서 3-2]

기성권번(箕城券番) 기생 장연홍(張蓮紅)(1911년생)은 뛰어난 미모와 지조를 겸비한 명기로 21세 때 상해로 유학길에 올랐다(국립민속박물관 2009:29)고 하나 그 후는 불명이다. 책을 펼쳐놓고 그윽한 눈매로 읽시선을 던지고 있는 모습에서 매혹적인 연출이 가미된 촬영기법이다. 손에 쥔 부채가 눈에 띈다. 엽서 윗부분에는 조선총독부건물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엽서 3-3] 눈길을 담아.

힐끗하고 결눈질로 당신을 보며 웃었다면서요. 그래서 곤약처럼 된 건가요. 당신...안 되겠네요...뭘, 그리고는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녀가? 아,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게 뭔가요. 자, 자네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게나. 그리고 있자나, 그녀가 나를 살그머니 사람이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말이야, 우물쭈물... 뭘니까, 그 우물쭈물 이라는 게? 그래서 말야, 그녀가 말야, 당신, 바지 단추가 열려있어요 라고 그



[엽서 3-3]

러더라고(◎眼差しこめ:チラと横目で貴郎を見て笑ったんですつて、それで蒔蕪のやうになつちやつたんですか、あんたは…いかんですなア…なに、それから話があるつて、彼女が?—ホウ、でその話は?…まア君、さう急さ給ふナ。それからね、彼女が僕をソツと人の居ない所へ伴れだしてね、ウニャウニャ…何ですかア、そのウニャウニャてのは?そのおね、彼女がね、あんた、ヅボンのボタン外れてるつて云つたよ。

전통적인 치마저고리가 아닌 양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다. 드물게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포즈를 취하며 신여성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밑바탕 배경 사진은 압록강 개폐교로 보인다. 사진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민망한 수준의 음담을 담고 있어 다소 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엽서 3-4] 이심전심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싫어. 그럼, 남편 싫어.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슬플 때, 기쁠 때, 어느 때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껴안아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우정으로 묶인 두 사람의 모습은 부러움을 넘어 황홀하게 합니다. 아아, 환희여, 애수여, 사랑이여, 눈물이여!

心と心と: あたし、ママになつたげる。やさ。ぢやア、ハズ ヤよ。お互いの心から心へー悲しいとき、嬉しいとき、毎時心をわけ合つて、一緒に泣き、一緒に笑ひ、相抱いて慰め合ふ、美しい友情に結ばれた二人の姿は、羨ましさを超越してうつとりとさせられて了ひます。あゝ、歡喜よ、哀愁よ、愛よ、涙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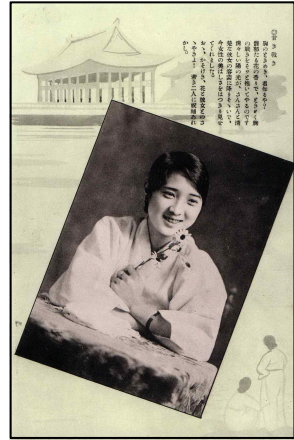


[엽서 3-4]

두 기생이 나란히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있는 포즈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있다. 오른 쪽 기생은 앞의 “추상”에 등장한 기생인 것 같다. 남대문으로 보이는 건물그림과 전차의 일러스트가 배경에 그려져 있다. 두 기생의 애환과 우정을 두드러지게 하는 내용이지만, 동성 간의 애정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엽서 3-5] 달콤한 전율

뛰는 가슴을 너는 알고 있니? 그윽한 꽃향기로 두근거리는 가슴의 전율을 살며시 안아줍니다. 상쾌한 햇살이 찬란하게 청초한 그녀에게로 내리쬐어 지금 여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오 오, 아련함이어, 꽃과 그녀와의 속삭임이어! 젊은 두 사람에게 축복 있으라(甘き戦き: 胸のときめき、君知るや? 馥郁たる花の香りで、ときめく胸の戦さをそっと抱いてやるのです。清々しい陽の光が、さんさんと清楚な彼女の容姿に降りそいで、今女性の美はしさをはつきり見せてくれました。おゝ、かそけき、花と彼女とのさゝやきよ! 若き二人に祝福あれかし).



[엽서 3-5]

당대 신여성의 자태를 물신 풍기며 미소를 짓고 있는 김은홍(金銀紅). “두근거리는 가슴의 전율”을 안겨주는 꽃향기로 표현하고 있다. 가운데 가름마를 타지 않고 왼 가르마를 타고 손가락에는 두개의 반지를 끼고 있다. 손목에는 팔찌시계로 보이는 장식을 차고 있는 모습. 배경일러스트는 경회루로 보이는 건물이다.

[엽서 3-6] 불가사의한 미소

그녀의 다정한 눈동자에서 미소가 흘러넘치는데 저는 슬며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소녀의 마음이 과도치고 있습니다. 섬세한 가슴의 실이 팽팽해집니다. 서쪽 하늘에서 땅거미가 조용히 내려와 거리의 붉은 등이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그녀의 미소 저편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수가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난 듯이 쌓아둔 책 위로 시선을 던집니다. 청춘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謎の微笑: 彼女の、やさしい瞳から、ほゝえみがこぼれて、でもあたし一つ そっと横を向いたンです。やはらかい乙女心が波打つてます。繊細い胸の糸が張り



[엽서 3-6]

切ってます。西の空から、夕闇が静かに下りて、町々に赤い灯がゆれ初める頃になると、彼女のほゝえみの底から云ひ知れない哀愁がしのびよってくるのです。そして彼女は、思ひだしたやうに、展いた本の上へ瞳を投げます。青春です。…若い乙女です)

평양출신 기생 노은홍(盧銀紅)으로 보이는데, 오른손 중지과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다. “다정한 눈동자” “미소” “애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린 소녀의 이미지를 강조한 내용이다.

[엽서 3-7] 무엇을 보는지

봄입니다. 꽃이 피어납니다. 맑은 하늘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봄입니다. 꽃꽂이 가득 진홍빛 꽃이 피었습니다. 젊음이라는 건, 자신만의 것이야. 그렇고 말고요, 이 포근한 양 뺨을 보세요 마음이 흐트러질 정도로 젊음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새까만 눈동자도 그렇습니다. 눈동자! 오오, 눈동자라고 한다면 지긋이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음으로(?)말미암아 그야말로 세상의 복 받은 것이죠(何をみつめて: 春です。花が咲いてます。大空が朗らかに笑っています。彼女の心の春なんです。



[엽서 3-7]

初々しい胸一杯に真紅な花が咲いてます。若さつて、自分のものよ。さうですとも、このふくよかな双頬をごらんないな、悩ましい程若さが生々と躍ってます。真黒な瞳だつてさうですね。瞳! おゝ瞳と云へば、ちッと彼女の瞳に射られてゐる(?)こそ、何と世界の果報もンであることですよ。

커튼을 손에 잡고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치마는 주름치마이며,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지 않고 핀을 꽂고 있다. 배경의 일러스트는 광화문으로 보인다. “지긋한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성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엽서 3-8] 마음을 품어

고민이란 어떤 걸까? 그래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정말 기쁘면서 슬프다는 건

사실이었어. 촉촉한 눈빛으로 하늘을 응시하며 그녀는 혼자 이야기합니다. 젓가슴 아래에는 자그마한 심장이 끊임없이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어요. 왜냐고? 아름다운 비밀이 소용돌이치면서 감미로운 하트 속을 달리고 있으니까요(思ひを秘め: 悩みつても、どんなものなのか? えゝ、あたしだけが知っているのーだつて、嬉しい哀しみつてほんとだわ。滴るやうな眼差しで、空を凝視めてひとり彼女はかたるのです。乳房のしたでは、小さな心臓が、絶えず激しい鼓動を続けてゐますなぜかつて?、美しい秘めごとが、巴になつて甘美なハートを駆け廻るんですもの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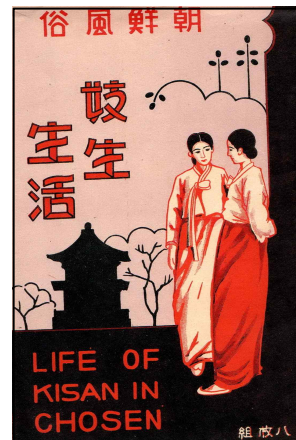


[엽서 3-8]

기생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오산월. 어깨에 솔을 걸치고 무심히 먼 곳을 바라보며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연출이 텍스트의 내용에 걸맞게 이루어졌다. 명암의 대비를 이용하여 기생의 실루엣을 잘 살린 사진이다. “아름다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촉촉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매혹적인 기생의 자태를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조선풍속 기생생활”

[엽서 4]는 다이쇼사진공예소(大正写真工芸所)에서 발행한 1930년대로 추정되는 ‘조선풍속’엽서 중 기생생활이라는 제목의 8장 세트 엽서이나 반드시 기생들의 생활 그것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봉투에는 “LIFE OF KISAN IN CHOSEN”이라는 영문제목과 각 엽서 오른 쪽 귀퉁이에 는 ‘Custom in Chosen’이라는 영문이 인쇄되어 있다.



[엽서 4]

[엽서 4-1] 나무 그늘의 두 사람

가을의 바깥은 기생에게도 기쁠 것이 틀림없다, 사이좋은 두 사람이 나무 그늘에 기대어, 그녀들 또한 사람이니 고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싶으리라(木陰の

二人: 秋の野外は妓生に取ってもうれし
いにちがひない、仲のいい二人は大木の
陰に寄り添って、かの女達もまた人の
子、郷里の事共互に語りたいであろう).

나무그늘, 혹은 정원, 명승지, 난간,
연못 등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기생을
사이좋게 연출하여 욕망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엽서사진.



[엽서 4-1]

[엽서 4-2] 무료함에

한 마디로 기생이라 하지만 내지의 예기(芸妓)와
조금 취지가 다르며 가정에 있어서는 양가의 규수처
럼 보이기도 하고, 서화와 관현의 연습을 하는 한편
독서도 즐긴다(つれづれに: 一口に妓生といふが内地
の芸妓とやゝ趣きを異にし家庭にあつては一個良家の
令嬢の如き観があり、書画管絃の稽古の傍はら読書に
も親しむ).

앞의 ‘기생의 농염한 여덟 자태’에 등장한 기성권
번 기생 장연홍의 사진을 트리밍(trimming)하여 사
용하였다. 드물게도 일본의 예기와는 달리, 음악은
물론 시서화를 연마하여 양가집 규수처럼 보인다는
차별화된 기생을 강조하고 있어 대단히 인상적이다.



[엽서 4-2]

[엽서 4-3] 벌어진 향기 나는 입술

옛 궁정에 피어나던 아름다운 기생,
지금 현란한 반도의 꽃과 향기. 서면
작약! 앓으면 모란? 향기 나는 입술
미소 지으며 그윽한 왕조의 꿈이 깃든
다(綻びる薫唇: 昔宮庭に咲きそめた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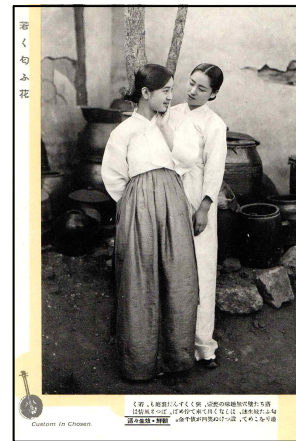


[엽서 4-3]

妓、今に絢爛たる半島の花と匂いふ。たてば芍薬! すわれば牡丹? 薫唇ほころびんとして馥郁たる王朝の夢を宿す). 기성권번의 임춘흥으로 보이는 기생이 열은 미소를 지으며 탁자에 손을 얹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옛 궁중의 기생이 지금은 식민지 조선의 꽃과 향기가 되어 “서면 작약 앓으면 모란”으로 은유된 기생의 미소에서 소멸된 왕조의 꿈을 노래한 것처럼 보인다.

[엽서 4-4] 젊고 향기로운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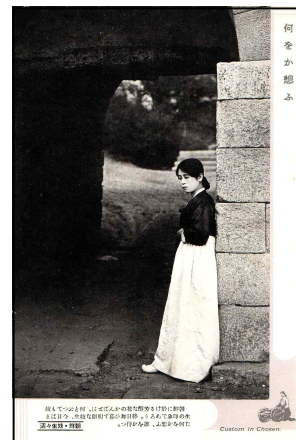
무너진 담벽 무취미한 향아리 좁고 수수한 뒤뜰도 젊고 향기로운 기생들이 어찌다 나와서 머물면, 휘둘러 정취가 주변에 퍼져 생각지 않던 보조개는 천금 같다(若く匂ふ花: 落ちた壁穴無趣味の甕壺、狭くくすんだ裏庭も、若く匂ふた妓生達、はしなく出て来て停めば、ぱっと風情は邊りをこめて、設つけぬ笑凹が値千金). 장독대와 금이 간 담벼락을 배경으로 사이좋게 포즈를 취하는 두 기생. 이 사진은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엽서에 자주 등장한다. 기장이 긴 모시저고리와 치마를 두르고 눈빛을 맞추며 속삭이듯 마주 선 두 기생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동성 간의 그윽함을 표현하고 있다.



[엽서 4-4]

[엽서 4-5] 무언가 생각함

조선에 있어 향기로운 꽃향기는 그야말로 기생의 인상일 것이다. 종일 춤추며 사는 명랑한 기생 오늘은 또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기다리는가(何をか想ふ: 朝鮮に於ける芳醇な花のかんばせは、何と云っても妓生の印象であろう。終日舞ひ暮す明朗な妓生、今日はまた何をか想ふ、誰をか待つ). 사진 속 주인공은 기생 최선옥으로 당대미인기생으로 알려졌다지만 다소 가난한 인상을 가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다(국립민



[엽서 4-5]

속박물관 2009:26). 조선의 기생을 “향기로운 꽃향기”로 “종일 춤추며 사는 명랑한 기생”으로 규정짓고 있다.

[엽서 4-6] 가야금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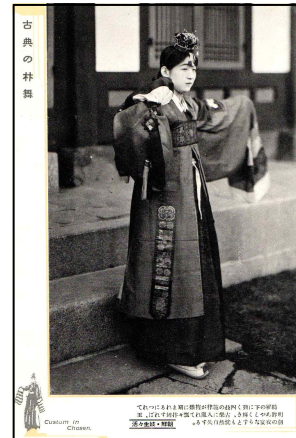
달밤에 바람이 보내주는 묘한 소리를 따라가면 그것은 창문 안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의 선율이다. 가야금이라고 해서 12현을 가진 조선 음악 정서의 하나이다(琴の調べ: 月の夜に風の送る妙な音をたどれば、それは深窓から漏れる琴の調べである。伽倻琴といって十二本の絃を有つ朝鮮音楽情緒の一である). 기생 김운월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



[엽서 4-6]

[엽서 4-7] 고전의 변무

아름다운 비단 아래서 움직이는 사지의 선율이 복잡하게 새겨지니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요사하게 빛나며 고악에 뒤섞여 표표히 변무를 춘다면, 왕조의 밤 연회가 아니더라도 황연자실 할 것이다(古典의 朴舞: 綺羅の下に動く四肢の施(旋의 오기)律が複雑に刻まれるにつれて明眸あやしく輝き、古楽に入乱れて瓢々(飄々の 오기)朴舞すれば、王朝の夜宴ならずとも恍然自失する). 국립민속박물관(2009:19)에 의하면, 궁궐을 배경으로 한 기생 사진으로 허리띠에 성수만세(聖壽萬歲)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궁중연회에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엽서 4-7]

[엽서 4-8] 검무

기생의 검무, 황황히 빛나는 검을 번뜩이며 음악의 리듬에 맞춰 나부끼며 격렬

히 춤춘다. 온화한 얼굴에 솟구치는 늠름함과, 가는 손에 담긴 힘이 아름답다(劍の舞ひ: 妓生の劍の舞、明煌々たる劍をひらめかし音楽のリズムに合わせて翩々と舞ひ狂ふ。やさしい顔にみなぎる凛々しさと、繊手にこもる力が美しい). 김운월과 또 한 명의 기생이 검무를 추고 있다. 뒤에는 남성악사와 북 등 악기가 보인다.



[엽서 4-8]

3. “기생정서”
이 엽서 세트의 뒷면 우표 붙이는 란에는 영문으로 “YAMADASHI KAIGAKENKYUKAI”라는 단체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일본 미에(三重)현 우지야마다시(宇治山田市)의 ‘絵画研究会’라는 회사에서 인쇄, 발행한 것이다. 8장세트 엽서로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 걸쳐 발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에는 ‘기생정서(妓生情緒)’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엽서 5-1]



[엽서 5-2]



[엽서 5-3]

[엽서 5-1] 긴 검은 머리 형클어졌다 풀렸다 당신을 기다리는 애달픔이여. 그녀의 반달눈썹이 조금 흐려졌다 또 다시 평정함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이란 피인

걸, 눈물인걸, 귀여운 기생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長い黒髪もつれてとけて、君をまつ身の、切なさよ。彼女の、三日月眉が、ちょっとくもって、また、もとの、平静さにかへります。戀は、血ぢゃもの、涙ぢゃもの、可愛い>妓生にも、こんな苦勞が、ありました).

[엽서 5-2] 새잎 같은 발랄함. 사과 같은 신선함. 흰 백합 같은 청초함. 붉은 장미 같은 요염함. 나는 지금 여자의 모든 것을 이 기생으로부터 받아와 새하얀 비단 천에 한 판 한 판씩 물들이고 있다(若葉のやうな、浣漣さー 林檎のやうな、新鮮さー 白百合のやうな、清楚さー 紅薔薇のやうな、艶麗さー 私は今女のあらゆるものを、この妓生からひろって、まつ白な絹の布に、一刷けさつと、染め上げてゐる). 한옥을 배경으로 두 명의 기생이 사이좋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엽서 5-3] 나이는? 살짝 웃고는 대답하지 않는다. 어디 출신이야?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하고 있다. 애인은 있어? 그녀는 비둘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생생한 어린 잎처럼 늙는다는 것을 모르는 여신과 같은 그녀였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빌고 또 빈다(年はいくつ? にと笑つて、答えない。生れはどこ? 項をかしげて、考へてる。リーベある? 彼女は、鳩のやうに、目を瞞つて愕いたやうな、顔をした。生々と、若葉のやうに、老いることを知らぬらしい、女神のやうな、彼女だった。私は、彼女の幸せを、心の底から祈つてやまない). 한옥 담벼락 옆에서 사이좋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명의 기생.



[엽서 5-4]



[엽서 5-5]



[엽서 5-6]

[엽서 5-4] 그리운 전통의 미. 풍요로운 지방적 정서. 아름다운 인정. 기생은, 조선이 낳은 아름다운 문화이다. 조선에서 기생을 뺀다면 그야말로 쓸쓸해 질것이다(なつかしい、伝統の美— ゆたかな、地方的情緒— 美しい、人情— 妓生は、朝鮮の生んだ麗しい文化である。朝鮮から、妓生をなくしたなら、それは、実にさびしいものになるであらう)。남대문입구에서 경성역 쪽을 배경으로 두 명의 기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엽서 5-5] 나뭇잎의 사랑거림. 작은 풀들의 속삭임. 언제나 명랑하던 그녀의 얼굴에 일말의 애수가 꽃에 깃든 이슬처럼 감돌고 있다. 그녀의 표정이 질고 열은 색채를 교착시킨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로부터 살그머니 비밀을 추상한다(木の葉の、そよぎ— 小草のさゝやき— いつも朗らかだった、彼女の顔に、一抹の哀愁が、花に宿る露のやうに、たゞよってゐる。彼女の表情が、濃淡の色彩を、交錯させる。彼は、彼女の陰影から、そつと、秘密を抽象する)。큰 나무 밑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명의 기생. 아랫부분에는 광화문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엽서 5-6] 청춘의 신비한 움직임이 있다. 소녀의 복잡한 감정이 있다. 기생의 모든 것에서 느끼는 섬세한 그 선, 울림이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에 감싸인 듯한 느낌으로 나는 기생을 그대로 그림으로 하여 가지고 싶다(青春の、神秘的な、動きがある。乙女の、複雑な、感情がある。妓生の、すべてからうける、デリケートな、その線— ひびき— なにか、やはらかいものに、つまれてゐるやうな感じで、私は、妓生を、そのまゝ絵にし、もってゐたい)。

[엽서 5-7] 여기저기 솔잎이 흐트러져 애뜻한 바람 소리. 창문에 거무스름한 장막이 내려 다시 추억의 밤이 온다. 기생의 얼굴에 나는 오늘 밤의 꿈을 마음에 그리며 홀로 아름다운 상상을 내 멋대로 해본다.



[엽서 5-7]



[엽서 5-8]

(ちりりぼりと、松葉がこぼれ、やるせないよな、風の音 窓に、うすずみのとぼりが下りて、また、想ひ出の、夜がくる。妓生の顔に、私は、今宵の夢を、心に描いて、ひとり美しい想像を、恣にはしらせる)。

[엽서 5-8] 동양적인 고요함이 축축이 그녀를 진정시켜 흘러넘칠 듯한 인정미를 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젊은 기생 하나하나에 지금도 여자의 생명이 맥을 친다. 그 누구도 꺾낼 수 없는 생명의 샘! (東洋的な、しづけさが、しつとりと、彼女をおちつけて、こぼれるやうな、情味をたゞへる、その艷姿。若い、妓生のひとつひとつに、今も、女の生命が、脈うってる。誰も、汲みとることのできない、命の、泉だ!).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엽서의 텍스트내용이 이미지사진과 반드시 정합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꽃, 향기, 뜨거운 입맞춤, 달콤한 전율, 동양적 정서, 전통의 미, 조선이 낳은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인정미, 섬세함, 애수, 새잎 같은 발랄함, 사과 같은 신선함, 흰 백합 같은 청초함, 붉은 장미 같은 요염함, 청춘의 신비, 생명의 샘 등으로 은유된 텍스트들은 기생이미지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제국남성의 시선과 성적 욕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엽서 사진에 선택되고 재현된 기생에 대한 이미지표상과 짝맞하게 기술된 직관적, 은유적 표현기법을 통해 “조선에서 기생을 뺀다면 그야말로 쓸쓸해 질” 정도로 조선미인=기생이라는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결론

권행가(2001:93)는 “기생 이미지는 일제가 식민 이데올로기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근대성의 항목을 떠맡은 조선풍속의 타자화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져 왔다. 이 때 기생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식민지의 은유”가 되었고 소비주체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인 남성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생’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에 의해 더 이상 특정한 계급에 속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포착된 식민지근대의 ‘대중기생’으로 재탄생되었고 사진엽

서 등을 통하여 반복, 재생됨으로써 스테레오타입화 되어갔다. 기생이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매춘종사자(창기, 일패, 이패, 삼패 등)는 사회적, 정치적, 법적, 윤리, 도덕적 통제의 대상이다. 때로는 ‘필요악’이라는 비논리적이며 폭력적인 정치적 언설 아래 기생에게 쏟아진 사회적 관심은 통감부의 경찰 권력에 의해 통제와 감독의 대상이 된 이후 식민지 근대의 사회적 변화상과 함께 1920, 30년대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당시 조선의 기생에 대해 약 15년간 경성에서 생활을 한 요시카와 헤스이(吉川萍水)가 남긴 『근대문화사 일기로서 조선기생 관찰기(妓生物語)』¹⁵⁾에서조차 “조선풍속이 최근에 몹시 바뀌었다는 감회가 저절로 솟구치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요시카와 2013:32)며 급격한 조선의 변화상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생과 관련하여서는 “시대에 순응하여 점차 내용을 쇄신하여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눈부신 조선 에로계의 첨단을 걸으며 선천적인 매력으로 무장하여 남성 뇌쇄의 비술을 총동원하여 다른 웃음을 파는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술을 따르기 위해 지금은 낡은 가죽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 방면도 점차 과거의 흔적은 멀어지고 근대라는 컬러의 베일에 싸여 가고 있다”(요시카와 2013:35)고 기술하고 있다.

이 관찰기가 출판 된 것이 1932년 12월 30일¹⁶⁾인 것을 감안하면 요시카와 헤스이는 적어도 1917년경부터 경성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근대에 머물고 있던 기생조차 근대라는 변화에 물결에 순응하며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여성으로 관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생을 “조선 에로계의 첨단” “선천적인 매력”을 무기로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 ‘작부’로 바라보는 제국남성의 욕망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15) 요시카와 헤스이(지) 김일권·이에나가 유코(역)(2013) 『근대문화사 일기로서 조선기생 관찰기』 민속원. 이 책의 해제에 따르면 저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에서 촉탁으로 『朝鮮の宗教』(경성, 조선인쇄주식회사, 1921)를 출판한 요시카와 분타로(吉川文太郎)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인용한 권행가(2001 위의 논문, 91쪽)는 “1932년 요시카와 효헤이(吉川萍永)의 『妓生物語』”로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37쪽)는 “요시카와(吉川萍永)의 『기생이야기(妓生物語)』”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요시카와 헤스이(吉川萍水)’와 ‘요시카와(吉川萍水)’의 오기인 것 같다.

16) 요시카와 헤스이(2013), 앞의 책 김일권의 해제에 따르면 저자서문에 1933년 봄으로 되어 있어 발행일자보다 늦게 완성되었다고 한다.

식민지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 확보에 있다. 그 정당성의 주요 내용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진화론에 근거한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발전단계를 현재화(顕在化)하여 식민지 지배대상을 전근대적 틀에 밀어 넣어 식민지 지배의 불가피함을 알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민지는 제국의 시선에서 타자화되고 그것에 의해 창출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은 공고한 것이 되어간다.

이런 점에서 사진엽서는 대단히 용이한 상징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단지 사진엽서가 갖는 ‘당대의 기억’이 갖는 ‘기록성’을 한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다. 또한 히노데상행이나 대정사진공예소 등 민간사진엽서 제작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판만 있으면 무한복제가 가능하여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었고 구매자들 또한 값싼 기념품으로 혹은 서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엽서 6-1] 조선풍속집
(조선무스메 1920~30년)



[엽서 6-3] 조선무스메
(1933~1945)



[엽서 6-4] 조선기생
생활(1939)

그러나 동일한 사진이 수년 혹은 10수년에 걸쳐 반복, 재생되어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됨으로써 표상이미지의 고착화는 능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의 [엽서 6-1]은 대정사진공예소서 1920년~1930년 초반에 걸쳐 발행 유통한 “조선풍속집” 8장 세트 중 ‘조선의 처

자(朝鮮の娘)’라는 제목의 사진엽서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이 좋게 담소를 나누는 두 명의 기생이미지는 이후 다른 사진엽서 [엽서 6-2]의 ‘평양백경’에 [엽서 6-3]의 또 다른 형태의 ‘조선의 처자’, [엽서 6-4]의 ‘조선기생생활’ 8장 세트의 ‘젊고 향기로운 꽃’, [엽서 6-5]의 ‘아리랑 엽서’에 반복하여 재생된다. 이 사례는 기생엽서 사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상당한 빈도로 원형이미지의 전용 혹은 변용을 통하여 기생이미지가 확산되었다.



[엽서 6-2] 평양백경(1935)



[엽서 6-5] 아리랑엽서(1930년대)

특히 기생엽서의 경우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된 조선으로의 기행, 조선총독부철도국의 관광업무의 관촉, 조선실업시찰, 물산공진회, 박람회 뿐만 아니라 한일합방기념엽서 등 제국남성의 시선을 이끄는 ‘식민지 조선의 꽃’을 표상하는 이미지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점 명백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인택(2017)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5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131-149.
- 요시카와 헤스이(吉川萍水) 저·김일권·이예나가 유코 역(2013) 『근대문화사 일기로서 조선기생 관찰기』 민속원, p.32, p.35, p.57.
- 황미연(2013) 『권변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일제강점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민속원, pp.12-40.
- 국립민속박물관(2009) 『엽서 속의 기생읽기』 민속원, p.46.
- 박민일, 신현규(2009) 「전통공연 계승의 관점에서 본 권변 기생 고찰」 『엽서 속의 기생읽기』 민속원, pp.172-183.

- 이진원(2007) 『조선태인보감』해제』『조선태인보감』, 민속원, pp.5-20.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pp.231-232, p.233, p.237.
- 서지영(2004) 「식민지 근대 유흥 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기생·카페 여급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5, 문학과 지성사, pp.132-366.
- 이경민(2004)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pp.20-21, p.23, p.26, p.27, p.89, p.129, pp.193-194.
- 권도희(2001) 「20세기 기생의 음악 사회사적 연구」『한국음악연구』 제29호, 한국국악학회, pp.319-344.
- 권행가(2001)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미술사 논문』 12, 한국미술연구소, pp.83-103.
- 浦川和也(2017)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①』, 민속원, p.11, p.13.
- 川村湊(2016) 「闇の花、朝鮮の妓生文化史」『東京人』APRIL2016, pp.68-73.
- 鄭炳設(2010) 「[座談会]東アジアの遊女・遊郭から西鶴の性愛を考え直すー日本の遊女・中国の妓女・韓国の妓生ー」『西鶴と浮世草子』 4諏訪春雄外, 笠間書院, p.19.
- 許娟姬(2010) 「植民地朝鮮における妓生の舞踊活動とその動向」『演劇映像学2010』 第1輯, 演劇博物館グローバルCOE紀要, pp.131-154.
- _____(2005) 「韓国券番成立過程の導入期に関する研究ー日本の公娼制度との関係を中心に」『人間文化論叢』 第8巻,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 pp.73-83
- 宋連玉(2006) 「妓生キーセンをめぐる言説空間と植民地主義」, 季刊『前夜』 7号, 影書房, pp.212-218
- 藤永壮(2004)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確立過程ー1910年代のソウルを中心にー」『二十世紀研究』 第5号, p.13.
- 福田アジオ外編(2002) 『日本民俗大辞典』 吉川弘文館, pp.454-455.
- 博文館(1905) 『韓国写真帖-写真畫報臨時増刊第二十五巻』 東京博文館, p.41.

DOI : 10.18075/jcs..67.201807.59

■ Abstract

Memory of Gisaeng(妓生) represented in postcard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Choi, In-Tag

Gisaeng, who was under the official discipline system of Joseon Dynasty by 'regulations for gisaeng' of the Residency - General of the Japanese Empire, has been recreated as the 'public gisaeng' who were captured in the eyes of the public of unspecified individuals. The image of 'gisaeng' that has been newly created in colonial modernity by abolition of official discipline system, gisaeng regulation, gisaeng association, and gisaeng call-office system became established in different social context from previous 'status system of gisaeng' as it got represented in the 'public' eye of unspecified individuals. In body paragraph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discourses on gisaeng represented in texts that supplement and emphasize the image of 'gisaeng' that has been repeatedly created in gisaeng postcards for the 'public gisaeng' that became the subject of regulation by the colonial power.

Key words : gisaeng regulation, status system of gisaeng, public gisaeng, postcards of gisaeng, gisaeng call-office system

■ 日本語抄録

日帝侵略期絵葉書からみた妓生記憶

崔仁宅

1908年統監部の'妓生団束令'と'娼妓団束令'により、朝鮮時代'官妓制度'のもとにあった妓生は不特定多数の大衆の視線に捕らわれた'大衆妓生'として生まれ変わる。官妓制度の廃止、妓生団束令、妓生組合、券番制度により植民地近代に新たに創出された'妓生'のイメージは、大衆の視線の中で表象されることによって以前の'身分制妓生'とは異なる社会的脈絡から捉えられることになる。本論では植民地権力によって社会的統制の対象になった'大衆妓生'について絵葉書により反復して再生された妓生イメージとそれを補完もしくは強調するテキストに注目し、それと関わる言説について議論を進めることにする。

キーワード : 妓生団束令、身分制妓生、大衆妓生、妓生絵葉書、券番制度

<필자인적사항>

성 명 : 최인택

소 속 :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 교수

연락처(이메일) : itchoi@dau.ac.kr

투고마감일 : 2018.04.30

심사개시일 : 2018.05.15

게재확정일 : 2018.06.15